

# 대등어의 합성어 성립 여부에 관하여

신 희 삼

(동신대학교)

Shin, Heesam.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ordinate Words and Compound Words. *Linguistics*, 5-2, 99-115. This paper is to determine whether or not a compound word belongs to a coordinate word. So far the nature of coordinate words has been recognized as that of compound words. But in view of the diagnostics of compound words, we need to find out whether a coordinate word belongs to a compound word or not. A coordinate word belongs to a compound word in form. But in this paper we want the diagnostics of compound words to be treated on the basis of the meaning, not the form. A coordinate word does not meet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that is the specification of meaning. And it is true of the function of compound words. In conclusion, it is not suitable to call a coordinate word a compound word. (Dongshin University)

## 1. 들머리

대등어가 합성어의 한 갈래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공시적 사실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합성어의 형태적 측면만을 가지고 대등어를 합성어의 하위 범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대등어를 합성어로 보기 위해서는 대등어가 합성어의 설정 기준, 기능 같은 본질적 속성에 적합하느냐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등어는 대등합성어, 병렬어, 벌린접씨, 병립어, 이은말 등으로 분리워왔다. 이 중에서 '대등'이라는 낱말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등어의 예로 '논밭, 밤낮, 마소, 위아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각 구성성분의 관계는 단순한 병렬이나 병립이 아니라 대조적(상대적), 등위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등어가 가장 적절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등합성어와 대등어 사이에서 대등어를 선택한 이유는 대등어의 내적 구

---

1. 대등어의 구조는 대조어나 등위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의어나 상하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조어-밤낮, 위아래, 강산

등위어-논밭, 밤감

유의어-\*사과과일, 아버지아저씨

상하어-\*남자소녀, \*소녀남자, ?남자아빠

조를 형태나 의미면에서 볼 때 합성어로 규정하는 것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성어의 갈래는 전통적으로 유속합성어, 융합합성어, 대등합성어 셋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란의 중심은 융합합성어와 대등합성어의 불명확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등어의 성격을 규정하여 지금까지 대등어의 위상과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둘째, 합성어와 관련된 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대등어가 합성어로 불릴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 셋째, 대등어의 어순이 합성어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를 검토하여 대등어에 대한 합성어 성립의 적절성을 살펴 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합성어에 대한 기준, 기능 등을 재점검해 보고 대등어에 대한 기준의 강화를 통해 대등어가 합성어로서 자격이 충분한가를 검증해 나갈 것이다.

## 2. 대등어의 성격

대등어에 대한 기존의 학설을 검토하여 보면 대등어의 성격 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대등어는 일반적으로 대등합성어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대등어에 연구를 심도 있게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1 기존 연구의 사례와 문제점

#### 2.1.1 전통문법의 견해

전통문법(학교문법)에서는 합성어의 종류를 유속합성어(종속합성어), 대등합성어, 융합합성어 셋으로 보고 있다. 최현배(1971)의 경우를 보자. 그는 합성어의 갈래를 어소결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보고 있다.

녹은 겹씨-둘이나 둘 더 되는 씨가 서로 겹하되, 아주 녹아 어울리어서 그 각각의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한 덩어리의 새 뜻을 나타내는 겹씨를 이름

- (1) 세월(歲月)-시간
- 광음(光陰)-시간
- 강산(江山)-국토

산수(山水)-풍경

초목(草木)-식물

가진 겹씨-겹씨의 요소인 두 씨 가운데에 하나는 주장이 되고 다른 하나는 딸림이 되어서, 딸림은 주장을 돕고, 주장은 딸림을 가진 관계에 있는 겹씨를 이룸

(2) 할미꽃, 손가락, 진달래꽃, 나무다리, 미인, 고향

별린 겹씨-두 씨가 각각 제 독립적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형식상으로 서로 겹쳐서 한 씨처럼 되어서 드디어 한 씨로서의 다름을 받는 겹씨를 이룸

(3) 마소-말과 소

춘추-春과 秋

봄가을-봄과 가을

갑을-甲과 乙

산천-山과 川

명암-明과 暗

형제-兄과 弟

강약-強과 弱

이회승(1955)의 예는 다음과 같다.

(4) 병립합성어-집집, 뽕뽕, 검붉다

주종합성어-꽃잎, 속옷, 꽃맛이

혼일합성어-손위, 밤낮, 나들이

위의 분류에 대한 약점은 서정수(1981)이 지적하고 임지룡(1985)에서도 동의했듯이, 합성어에 대한 기준의 혼란과 합성어를 가르는 잣대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준과 잣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1.2 형태·의미적 관점의 견해

이것은 이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단어의 내부 구조가 형태적이

나 의미적이거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전통문법의 견해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였다는 점을 특색으로 들 수 있다.

김계곤(1972)에서는 합성의 기준을 앞 뒤 성분이 대등적이거나 종속적이거나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임지룡(1985)에서도 합성어를 뿌리끼리 결합된 낱말로써 보고 그 갈래는 뿌리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된 것이나 그렇지 않으나에 따라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로 나눈다. 대등합성어의 지위는 구성요소가 형태상으로 평행을 이루며, 의미상으로 공통성을 많이 가지면서 최소 자질로 대립된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대등어를 합성어로 보는 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이점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겠다

시정곤(1994)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는 의미론적 측면에서 복합어<sup>2</sup>는 의미변화를 전제로 하고, 의미변화라는 것은 두 어근의 의미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의미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등복합어(병렬복합어)를 복합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융합합복합어를 복합어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점에 대한 논의는 뒤에 가서 다루겠다. 또한 이재인(1996:89)에서는 ‘바지저고리, 안팎, 피땀, 논밭, 밤낮, 마소’ 등이 ‘무능력자, 부부, 노력, 농토, 향상, 가족’ 등과 같이 비합성적 명사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각 구성성분의 의미가 단순한 대등적 연결이 아니라고 해서 합성성의 원리<sup>3</sup>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의미융합적인 결합이 합성의 근본 원리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 3. 대등어와 합성어의 관계

대등어가 합성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합성어의 판별 기준과 기능을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대등어를 합성어 판별 기준과 기능에 맞춰 합성어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

2. 복합어와 합성어의 술어는 사람에 따라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첫째는 복합어를 상위어로 놓고 그 밑에 파생어와 합성어를 놓는 형태이고, 둘째, 합성어를 상위어로 놓고 파생어와 복합어를 하위어로 놓는 형태이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분류를 가리킨다.

3. 합성성의 원리란 합성어의 의미가 앞성분과 뒷성분이 의미결합을 통해 도출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의미결합의 형태를 수평적, 병렬적인 경우로 한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의미의 복잡함으로 미루어 볼 때, 합성의 융합방식은 합성성의 원리에 충분히 부합이 된다.

## 3.1 합성어의 판별 기준

합성어의 판별 기준은 실제적으로 합성어 여부를 가리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면서 지금까지 별로 중요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합성어 판별 기준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자. 먼저 일반적인 합성어 설정기준에 (주 또다른 견해를 제시한 사람으로 김규선(1970)-휴지와 연결, 강세, 음소의 변화, 어순, 구성성분의 내적 확장, 구성성분이 수반할 수 있는 외적 분포류의 차이, 관용화, 이주행(1981)-연접, 구성성분의 배열순서, 음소변화의 유무구성성분 사이의 내적 확장, 외적분포 남기심·고영근(1985)-띄어쓰기, 쉽 분리성, 김석득(1988)-의미변화, 이석주(1989)-의미변화, 서정수(1993)-내적 분리설, 외적분포, 의미적 융합관계(구별기준), 음운변화, 휴지와 연결, 강세, 어순, (보조기준) 속하는 김정은(1995)의 견해가 있다. 서정수(1993)과 김정은(1995)의 견해를 살펴보자.

## (5) 서정수(1993)의 견해

구문론적 기준

- ㄱ. 내적 비분리성
- ㄴ. 외적 분포 관계

의미적 기준

- ㄱ. 의미적 융합관계

보조적 기준

- ㄱ. 음운 변화
- ㄴ. 휴지와 연결
- ㄷ. 강세
- ㄹ. 어순

## (6) 김정은(1995)의 견해

일부 합성어에만 해당하는 기준

- ㄱ. 연결
  - 산꽃-산에 피는 꽃(구)
  - 산꽃-진달래꽃(합성어)
- ㄴ. 비분절음소

고무신/komusin/: 고무 신/komu+sin/

감나무/kamnamu/: 감 나무/kam+namu/

㉔. 음운변동

- ㉔ ㉔ 음운탈락:소나무,마소
- ㉔ ㉔ 음운의 첨가:솔방울, 물엿
- ㉔ ㉔ 음운의 변화:숟가락, 선달

구조론적 기준

㉔. 구성성분의 내적 확장 유무

- ㉔ ㉔ 큰집 :큰 집
- ㉔ ㉔ 나뭇잎:나무 잎
- ㉔ ㉔ 돌아가다(死):돌아 가다

㉔. 구성성분의 배열순서

- ㉔ ㉔ 밤낮(항상)-\*낮밤:밤과 낮-낮과 밤
- ㉔ ㉔ 봄가을-\*가을봄<sup>4</sup>

㉔. 외적 분포 관계

- ㉔ ㉔ 나의 큰집, 부유한 큰집:매우 큰 집, 가장 큰 집
- ㉔ ㉔ 이 들것, 무거운 들것:가볍게 들 것, 높이 들 것

의미론적 기준

㉔. 의미의 변화

- ㉔ ㉔ 국밥:국 밥
- ㉔ ㉔ 밤낮:밤 낮

(5)와 (6)의 두 기준은 합성어 설정 기준으로 들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듯하다. 그러나 기준의 범위가 너무 산만함으로써 기준 자체에 대한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김광혜(1995)의 한자 합성어에 대한 합성어 판정의 기준을 살펴 보기로 하자.

기준1:명백한 통사 구조의 형태를 배제한다.

(7) ㉔. 'X+서술어'의 구조

㉔. '수식어+X'의 구조

<기준 1의 조건>

문 구조임이 확실한 예들은 합성어 목록에서 제거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기준2: 불투명한 성분을 포함한 형태는 합성어이다.

기준3: 명칭은 합성어이다.

---

4. 김소월의 '산유화'같은 시에서는 가능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어순이 절대불변인 것은 아니다.

기준4:‘+알파’<sup>5</sup>의 의미가 형성된 형태는 합성어이다.

위에서 언급한 합성어 설정 기준의 복잡성은 단어마다 혹은 문맥에 따라서 달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느낌이 든다. 그러므로 합성어 기준의 단순화 혹은 정예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합성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원론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Downing(1977)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단히 의아스럽게도, 논리를 초월하여 단어 결합형을 만들어 낸다. 이 때 낱말이 결합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화자들은 개인에 따라 선호도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 몰라도 합성법에 의하여 명사가 결합될 수 있는 방식에 관한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나 제약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거의 공감하고 있다.(김광해, 1995:85에서 재인용)

이 원리는 합성어의 설정기준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합성어도 새로운 단어 생성의 범주에 속하므로 어떤 큰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합성어 탄생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단어경제성의 원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sup>6</sup>.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사물,사상이 나타났을 때마다 새로운 단어<sup>7</sup>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기억력은 금세 한계에 다다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단어를 가지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중의 대표적인 것이 합성어이다. 합성은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미의 특수화’<sup>8</sup>를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

5. ‘+알파’에 대한 문제는 합성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상당히 어렵게 한다. 임시적 합성어에 관한 문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 합성어의 특징을 말한다면 요컨대 화자가 어떤 결합 형태를 채택하여 특별한 의미, 즉 ‘+알파’의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은 합성어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알파’의 의미가 결부되어 사용되다가 그 유통의 폭이 넓어지면 기존 합성어의 목록으로 넘어 오게 된다(김광해, 1995:111).

6. 합성어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최대의 정보량을 최소의 언어 구조 속에 뭉뚱그려 넣으려는 화자의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다우닝1977:823,김광해 1995:87에서 재인용)

7. 새말은 신형어, 신조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지룡(1997:250~251)은 다음과 같이 새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새말의 창조는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명명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개념에 대하여 명명의 필요성이 생길 때, 인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에 대처한다. 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이다. 그러나 새로운 의미를 전혀 새로운 형태에 담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기존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기존 형태의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다. 그 까닭은 말이란 본질적으로 인종이 공유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말은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장된 것을 뜻한다. 새말의 방식으로는 기존형태의 확장, 혼성, 축약, 파생, 대체 등이 있다.

8. ‘의미의 특수화’의 범위는 의미의 확장이나 축소 등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

성어의 설정 기준을 ‘의미의 특수화’란 단일 조건 아래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전통문법에서 분류한 세 가지의 합성어에 대해서 그 성립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sup>9</sup>.

### 3.1.1 유속합성어(종속합성어)

유속합성어는 합성어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형태<sup>10</sup>에 속한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 (8) 가-기와집, 개집, 안경집, 벽돌집, 이층집  
 나-돼지머리, 책상머리, 뱃머리  
 다-소고기, 양고기, 물고기  
 라-개다리, 돌다리, 한강다리  
 마-금방울, 은방울, 쇠방울  
 바-춧불, 담뱃불, 쥐불

(8)의 합성어의 구조를  $A+B=C$ 라고 했을 때, C는 단순한 A와 B의 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가진 독자적인 단어로서 자격을 가진다. 이 경우 Allen(1978:105)이 제시한 ‘이다’조건(‘IS A’Condition)에 맞춰보면 C는 B의 범주에 들어간다. 유속합성어는 합성어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어형성규칙에 들어 맞는 형태라 할 수 있다<sup>11</sup>.

### 3.1.2 융합합성어

융합합성어에 대한 의견은 유속합성어처럼 정상적 어형성규칙에 딱 들어 맞는다고는 볼 수 없다. 시정곤(1994)에서는 융합합성어가 합성성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 관용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융합합성어가 의미의 연합이라는 합성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관용어의 범주에 넣는 것

---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세한 의미의 변화를 나타내는 ‘폴러스 알파’의 경우도 포함한다.

9. 여기에서는 합성어의 대상을 ‘합성명사’로 국한한다. 만약 이 연구가 설득력을 갖는다면 대상을 더욱 확장할 수가 있다.

10. 생산성이란 규칙에 예외가 드물고, 경제성 원칙처럼 언어 활동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는 단어형성의 중요한 원리를 가리킨다.

11. 이것은 다의어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단어가 합성을 통하여 생겨난 의미의 변화가 역삼투의 방식으로 다시 그 단어의 의미성분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신회삼, 1996)



은 수긍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합성성의 원리 벗어났다고 하면 오히려 대동합성어가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임지룡(1985)에서는 대동합성어와 융합합성어를 대동합성어의 범주에 넣고 이 둘을 형태상, 의미상의 관점에서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대동합성어를 형태상의 합성으로 본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합성의 전제조건을 '의미의 특수화'에 두었으므로,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대동합성어를 정상적 어형성규칙에 따른 합성어로 보기는 곤란하다. 굳이 합성어의 범주에 넣는다면 '어휘화'<sup>12</sup>한 합성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정도다. 다음 융합합성어의 예를 보기로 하자.

(9) ㄱ. 한자어

- 세월(歲月)-시간, 광음(光陰)-시간,風水(풍수)-지관
- 강산(江山)-국토, 산수(山水)-풍경, 草木(초목)-식물
- 춘추(春秋)-나이, 장단(長短)-가락, 주야(晝夜)-늘
- 모순(矛盾)-불일치, 옥석(玉石)-진위, 내외(內外)-부부
- 흑백(黑白)-잘잘못

ㄴ. 고유어

- 밤낮-늘, 논밭-토지, 땅, 물불-위험, 손발-협력자
- 앞뒤-논리, 피땀-노력, 아래위-차례, 바지저고리-허수아비

위의 융합합성어의 구조는 유속합성어의 그것처럼 단어의 핵이 뒷성분에 있지 않고, 두 개의 성분이 연합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시정곤(1994)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용어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수긍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동합성어를 합성어로 보고 이 대동합성어가 관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합성어 설정 기준의 핵을 의미의 특수화로 본다면 더욱 그렇다. 융합합성어의 앞성분과 뒷성분은 융합된 의미의 하위범주화로서 이것만으로 의미가 가능한 것으로 구태여 다른 낱말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동의어의 양산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경제성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10) ㄱ. 강산(江山)-국토

- ㄴ. 초목(草木)-식물

---

12. 어휘화란 정상적 인 규칙으로 설명하기 힘든 예외적인 현상을 가리키는데에 많이 쓰이는데 결국 생산성이 희박한 규칙의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0)의 예를 보면 ㄱ의 강산은 강과 산이 아닌 국토를 말한다. 국토의 또다른 동의어(새말일 수도 있음)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 국토와 관련이 있는 기존의 강과 산을 이용하여 국토의 뜻을 대신하는 것이 언어의 일반적 현상과 일치된다.

### 3.1.3 대등합성어

대등어가 합성어인가 하는 점은 합성어 설정기준인 의미의 특수화와 관련시켜 생각해야 한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 (11) ㄱ. 한자어

주야(晝夜), 강산(江山), 흑백(黑白)

산수(山水), 장단(長短)

ㄴ. 고유어

밤낮, 위아래, 팔다리, 똥오줌, 봄가을

엄마아빠, 아들딸, 오늘내일, 아침저녁

비바람, 여기저기

(11)의 대등어들이 합성어의 기준에 맞는가는 의미의 특수화에 맞춰보아야 하는데, 시정곤(1994:164)에서 지적하기를 대등어는 어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면(봄가을-\*가을봄, 비바람-\*바람비, 여기저기-\*저기여기) 본래의 뜻과 멀어져 합성어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이 대등합성어의 의미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지적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어순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어순의 문제는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 예를 들면, 나먼저 원칙, 시간의 원칙, 긍정적인 것의 우선 원칙 등이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순이란 관습의 문제지 의미변화의 차원에서 바라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 (12) ㄱ. 아빠엄마-엄마아빠, 가다오다-오다가다, 아들딸-딸아들,

밤낮-낮밤, 내왕-왕래

ㄴ. 심신(心身)/몸과 마음, 주야(晝夜)/밤낮, 종횡(縱橫)/가로세로

우마(牛馬)/마소, 전답(田畓)/논밭, 피차(彼此)/이쪽저쪽

생사(生死)/죽살이, 출입(出入)하다/드나들다

ㄷ. 내왕(來往)-왕래(往來)/가다오다-오다가다

(12)의 예들은 어순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여 주고 있다. ㄱ의 예는 주로 고유어에서 나타나는데 어순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ㄴ의 예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어순이 다른 예들인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유가 있다면 관습의 차이일 정도이다. ㄷ의 예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자유로운 어순 이동의 예인데 이것 역시 앞의 것과 비슷하다.

대동어를 합성어로 본다면 그 외적인 조건은 형태상의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형태상의 조건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 (13) ㄱ. 나는 아빠엄마가 좋다.  
 ㄴ. 자랑스러운 아들딸이 되자.  
 ㄷ. 그는 생활에 밤낮이 바뀌었다.  
 ㄹ. 그는 눈발을 많이 가지고 있다.

(13)의 문장에 나타나는 대동어는 의미상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는 않는다<sup>13</sup>. 위 문장은 대동어를 떼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쓸 수가 있다. 다음을 보자

- (14) ㄱ. 나는 아빠와 엄마가 좋다.  
 ㄴ.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자  
 ㄷ. 그는 생활에 밤과 낮이 바뀌었다.  
 ㄹ. 그는 눈과 발을 많이 가지고 있다.

(14)의 두 문장의 종류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문장은 국어의 일반적인 특징에서 보듯이 조사가 생략되어 쓰이다가 나중에는 붙여지고 다시 이 붙여진 형태가 고정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예이다.

- (15) 나는 아빠와 엄마가 좋다→나는 아빠 엄마가 좋다  
 →나는 아빠엄마가 좋다

이를 더욱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의 예를 보자. 서정수(1993:268~269)에

---

13. 앞성분과 뒷성분의 의미변화는 없고 단지 의미나열, 의미집합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서 말한 합성어를 가리는 기준중 '내적 비분리성'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합성어 성분의 비분리성은 합성어를 구분하는데 가장 유력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로 인정된다. 이것은 낱말을 이루는 모든 성분은 서로 뗄 수 없는 결합 관계를 보임으로써 구문적 결합과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다. 합성어의 경우에는 그 성분이 어근이나 어간이지만, 역시 한 낱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성분이 비분리성을 가지고 결합되게 마련이다.

- (16) 1) a.그는 밤낮 구별하지 않았다.  
           b.그는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았다.
- 2) a.그는 밤낮 남의 칭찬만 하였다.  
           b.?그는 밤과 낮에 남의 칭찬만 하였다.

위에 나와 있는 (1a)의 '밤낮'은 성분들 사이에 '과'와 같은 조사 따위가 개입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것은 2성분이 이은말로 결합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2a)의 '밤낮'은 그 성분 사이에 '과'와 같은 탄 요소를 넣으면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만다. 이것은 그 성분이 비분리성을 보이는 것이므로 합성어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서정수 1993:269). 바로 이러한 이유로서 대등어는 분리가 가능한 이은말의 형태이기 때문에 합성어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대등어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융합어로 되지 않고 대등어 자체로만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은 대등어는 융합어가 되기 이전의 과도적 형태라는 반증일 수도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 (17) ㄱ. 오누이→오라비와 누이→오누이
- ㄴ. 강산→강과 산→풍경  
           논밭→논과 밭→토지  
           아들딸→아들과 딸→자식  
           밤낮→밤과 낮→늘

### 3.2 합성어의 기능

대등어가 합성어에 속하는가 아닌가 하는 조건으로 합성어 설정 기준과 합성어의 기능을 들 수 있다. 11차적으로 합성어의 설정기준인 의미의 특수화에 따라 합성어를 분류하면 유속합성어와 융합합성어로 나누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대동어는 속하지 않는다. 2차 기준인 합성어의 기능에 비추어 대동어의 합성어 성립여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신희삼(1997:67)에서 지적한 합성어의 기능<sup>14</sup>은 다음과 같다.

- (18) 합성어의 기능
- 가. 하위 범주화의 기능
  - 나. 은유의 기능
  - 다. 의미의 전이
  - 라. 추상적 의미의 구체화
  - 마. 간접명명의 기능
  - 바. 유추의 기능

위의 기능에 따른 합성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9) 가. 하위 범주화의 기능
- 사과나무, 밤나무, 빛나무, 초가집, 기와집, 새집
- 나. 은유의 기능
- 사람머리, 소머리, 대머리, 지겟머리, 말머리
- 다. 의미의 전이
- 물고기, 바닷고기, 물방울, 빗방울, 상다리, 바람소리
- 라. 추상적 의미의 구체화
- 춧불, 담뱃불, 연탄불, 장작불, 산불
- 로. 간접명명의 기능
- 까치박달, 강아지풀, 개똥벌레, 쥐며느리, 까치발, 오리발
- 비. 유추의 기능
- 아가방, 노래방, 놀이방, 호박마차, 이빨내기

---

14. 합성어 기능에 관한 이론으로 Downing(1977)과 김광해(1995)가 있다.

Downing의 예

- 가. 지시물의 하위 범주화
- 나. 명칭의 제공
- 다. 전보 문체에 관한 수단 제공

김광해의 예

- 가. 명명 기능
- 나. 지시 기능
- 다. 하위 범주화 기능

유속합성어는 위의 기능 어디에도 다 해당이 된다. 융합합성어는 위의 여섯 가지 기능에서 바의 유추의 기능에 해당될 수 있다. '밤낮'의 경우, 밤과 낮의 속성상 항상, 늘이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대등어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 4. 대등어의 생성 원인

대등어의 생성 원인과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원리는 낱말연상과 어순에 관한 것이다. 낱말연상에 관한 반응 조사는 대등어의 구성성분이 상호 대조적인 원인을 밝혀준다. 그리고 대등어의 어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변적인 것이므로 어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4.1 연상원리

크라크(1970:271~286)는 연상을 연합반응과 통합반응으로 나누고 있다. 연합반응이란 '나무'에 대한 '꽃'처럼 자극낱말과 세로 관계에 있는 낱말을 반응하는 것이며, 통합반응이란 자극낱말과 가로 관계에 있는 낱말을 반응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대등합성어의 생성은 연합반응과 관련된다. 이와 같이 낱말연상 실험은 개념이 어떻게 마음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 줄 뿐 아니라(크라크 부부, 1977:482), 어떠한 환경에 있는 낱말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가를 잘 보여준다(조명한, 1979:160). 이 경우 자극낱말에 대한 반응낱말은 피실험 집단의 성격과 다른 여러 요인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겠지만 위의 사례를 보면 놀랄 만한 일관성이 이루어지며 연상강도에는 고정된 원리가 있음을 보여준다(임지룡, 1985:9~10에서 재인용).

연상원리의 일반성은 크라크(1970)에서 지적했듯이 대조어나 등위어에서 연상 속도가 빠른 반면 유의어나 상하어에서는 연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sup>15</sup>. 이러한 연상원리의 특성은 대등어의 속성을 잘 말해 줄 수 있다.

##### 4.2 어순의 문제

대등어의 어순은 정상적인 어형성규칙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규칙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5. 크라크(1970:277)의 예

(20) ㄱ. 나먼저원칙

W.E.Cooper & J.R.Ross(1975:65-7,93) 및 J.R.Ross(1982:282)에서  
 는 ‘나’(Me)를 발화시 공간과 시간에 놓여 있는 ‘사람’어른“남성”  
 으로 규정하여 ‘나먼저원리’에 적용을 받는 20개의 유형을 제시하  
 였다. 예컨대, 화자에 가까운 요소, 발화 시간에 가까운 요소, 화  
 자의 세대에 가까운 요소, 집에 있는 요소, 단단한 요소, 살아 있  
 는 요소, 사람, 단수 등을 앞자리에 놓는다는 의미규칙이다.(임지  
 룡, 1995:183에서 재인용)

ㄴ. 기타원칙

- ㉠. 긍정적 개념원칙
- ㉡. 지각범주시
- ㉢. 화자우선의 원칙
- ㉣. 무표우선원칙

(20)의 두가지 원칙은상호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달리 말하면 어순의 문재  
 는 가변성이 많은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  
 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음은 어순 교체가 자유로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 (21) ㄱ. 밤낮-낮밤, 위아래-아래위, 똥오줌-오줌똥,  
 ㄴ. 봄가을-가을봄

어순교체의 자유로움은 단어로서의 핵이 없는 단순 나열형과 같다. 이러  
 한 형태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상상  
 할 수 있다.

| 자극날말 | 반 응 날 말(%) |         |        |
|------|------------|---------|--------|
| 남자   | 여자(62)     | 소년(8)   | 소녀(3)  |
| 여자   | 남자(53)     | 소녀(9)   | 소년(1)  |
| 소년   | 소녀(70)     | 남자(5)   | 여자(0)  |
| 소녀   | 소년(60)     | 여자(5)   | 남자(1)  |
| 아버지  | 어머니(65)    | 아들(15)  | 딸(2)   |
| 어머니  | 아버지(67)    | 딸(5)    | 아들(0)  |
| 아들   | 딸(42)      | 아버지(28) | 어머니(3) |
| 딸    | 아들(40)     | 어머니(10) | 아버지(7) |

(임지 룡,1985:94에서 재인용)

- (22) 남자여자- 여자남자  
 소년소녀- 소녀소년  
 아버지어머니-어머니아버지  
 봄여름-여름봄  
 봄겨울-겨울봄

이들이 가능한 것은 전혀 어떤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대등적 연결 형태는 사전 등재 문제를 야기시킨다. 생산성은 높지만 의미의 융합이 아닌 형태의 단순나열인 대등어는 어떻게 보면 잉여적인 형태의 단어 결합이기 때문이다. 한자어와 고유어와는 그 특성에 비추어 동일선상에서 다루면 안된다.

## 5. 마무리

대등어의 합성어 성립여부는 단순한 형태적 이은말로 보느냐 아니면 의미적 결합체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등어를 합성어의 하위범주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합성어의 판별 기준을 의미의 특수화로 볼 때, 대등어는 의미의 결합체보다는 단순한 이은말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합성어에 대한 기준을 의미의 특수화에 맞추지 않고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합성어에 대한 결정적 단서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여 마무리로 대신하겠다.

첫째, 대등어의 갈래는 전통적 관점과 형태·의미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갈래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합성어 설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면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둘째, 합성어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먼저 합성어 설정기준은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기준의 과다는 기준 자체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합성어 설정 기준은 '의미의 특수화' 하나로 정한다. 이 기준에 맞추어 보면 대등어는 합성어로 볼 수가 없다. 대등어 자체로는 의미의 특수화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성어의 기능에 맞추어 보아도 대등어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 두 가지 면에 비추어 대등어는 합성어 범주에 넣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셋째, 대등어의 생성 원리에 관한 것으로, 낱말의 생성과 어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등어는 통계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대조적,동위적인 것이 주를



이룬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한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상강도가 반드시 합성어와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의미의 특수화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어순 문제 역시 그러한데, 어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순은 가변적이라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대동어에서 어순이 가변적이라는 것은 구성성분간의 결합이 분리적이라는 것이다. 합성어의 요건에서 비분리성은 의미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대동어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융합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전단계의 형태로서,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잉여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대동어는 합성어로 볼 수가 없다.

## 참 고 문 헌

- 김광해. 1995.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 서울: 집문당.  
 김정은. 1995. 국어 단어형성법 연구. 서울: 박이정.  
 서정수. 1993. "합성어에 관한 문제", 국어학 강좌, 3, 257-304, 서울: 태학사.  
 서정근. 1994. 국어의 단어형성 원리. 서울: 국학자료원.  
 신희삼. 1996. "다의어 형성에 관하여", 한국언어문학, 37, 117-134, 한국언어문학회.  
 ----- 1997. "현대국어의 단어형성에 관한 연구(1)", 한국언어문학, 38, 63-82, 한국언어문학회.  
 이재인. 1996. "국어 합성명사 형성에서의 의미론적 제약 현상", 배달말, 21, 75-93, 배달말학회.  
 임지룡. 1985. "대동합성어의 의미분석", 배달말, 10, 87-113, 배달말학회.  
 ----- 1995. 국어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전상범. 1987. 생성형태론. 서울: 한신문화사.  
 채완. 1986. 국어어순의 연구. 서울: 국어학회.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Bauer, L. 1983. *English Word 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lark, H. H. & Clark, E. V.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